

제왕적 권력문화 혁신

정부 국정운영 시스템 개혁

공직사회문화 개선

국민 국정참여 문화 확대

국가 비상대응 시스템 구축



생각해 보면,
너무 벅찬 일을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나라의 기본 틀을 뜯어고쳐 보자.
공무원 일하는 방식을 바꾸게 해보자.
어떻게 일할지 그 방법부터 연구해 보자.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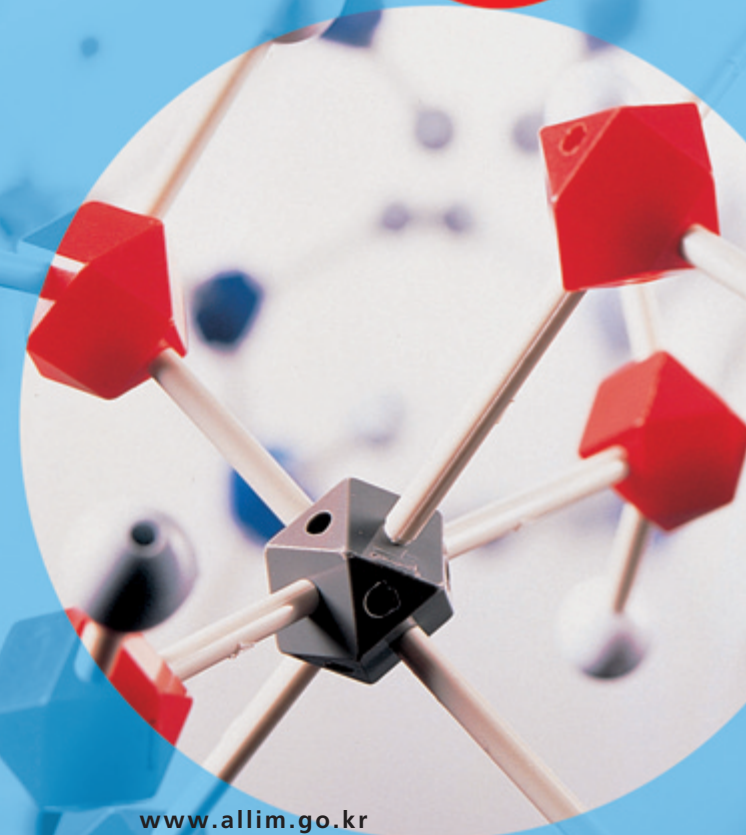
몇몇 사람의 노력으로는
너무 힘겨운 일일 것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이루기에는
벅찬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엔 힘들더라도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늘 같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 탄생한
참여정부는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기어코 좋은 나라 이루어,
편안히 사시게 만들겠습니다.

국정운영의 새로운 틀을 마련했습니다

참여정부의
꿈과 희망
국정운영 시스템



꾸준히 운동하면
우리 몸이
건강체질로 바뀌듯이...
부지런한 땀방울로
나라의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꼭 해야 할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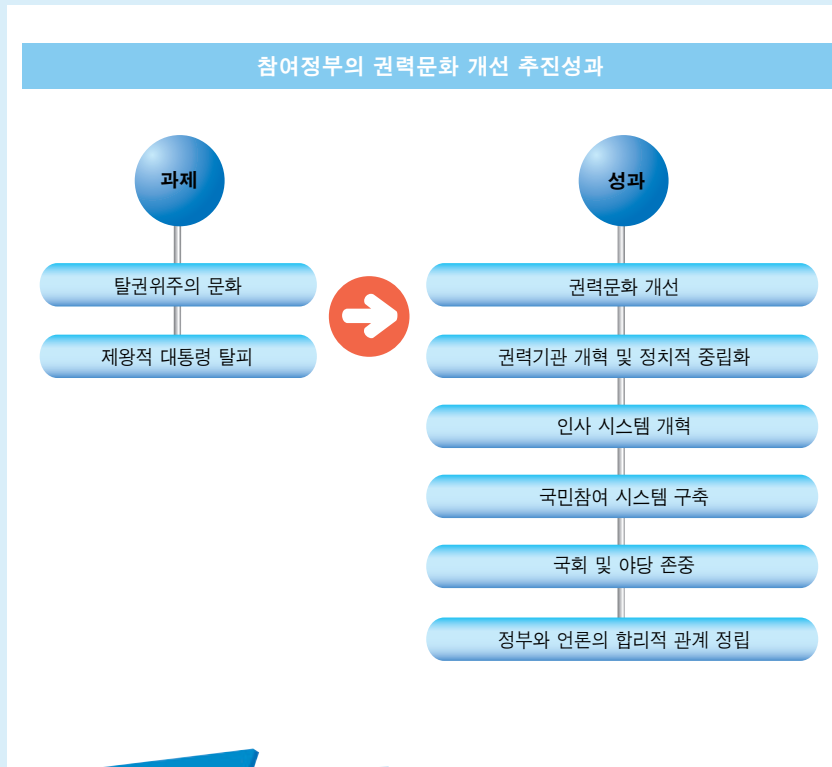


국민에 거부감을 주던 제왕적 권력문화를 바꾸었습니다

- 국무총리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고, 장관의 인사·조직 재량권을 보장했습니다.
- 청와대 기능을 부처 통제 위주에서 정책과제 중심의 참모 기능으로 바꾸었습니다.
담당 수석실을 폐지하고 정책실로 통합, 국정과제 추진 테스크포스(T/F) 설치
- 대통령 독대제를 없애고,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 추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했습니다.
국정원·경찰의 정치정보 생산 금지 및 권력기관에 대한 간섭 금지
- 대통령의 별장인 청남대를 주민에게 돌려주고, 청와대 개방을 확대했습니다.

정부 시스템과 공직문화를 개혁하고 있습니다

- 테마 국무회의를 개최해, 장관들과 수평적 입장에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예시
선진 안전관리 체제 구축방안(3.4)
참여정부 인사 시스템 개혁 로드맵(4.8)
사회적 갈등해결 역량 강화방안(4.15)
전자정부 비전과 추진원칙(5.6)
화물연대 집단행동 원인과 향후과제(5.20) 등
- 조직과 인력을 업무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사람 중심으로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정책을 펴나갈 때마다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부처마다 인사 혁신을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정보 관리책임자(CIO)를 지정해 행정정보를 공개합니다.
- 폐쇄적이던 행정기관에 새로운 토론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토론식 수요 간부회의(통일부)
민관 합동 문화행정혁신위 운영(문광부) 등
- 정부의 중요 자리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되었습니다. 부처간 인사교류로 공직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의 물꼬를 텃습니다.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꾸준하게 바꿔 '선진국형 정부' 를 만듭니다

- 친구같이 편한 대통령, 그러나 원칙과 법·질서를 확고히 견지하는 새로운 권력문화를 만들겠습니다.
- 내년까지 업무와 기능을 재평가해 정부의 효율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 급년중 재정개혁을 이루어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꼭 필요한 곳에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정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원클릭(One-Click)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국정운영에 대한 보다 폭넓은 국민참여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 국민참여의 에너지를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고, 성숙한 참여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국민참여수석실' 을 신설했습니다.
- 청와대 홈페이지 www.cwd.go.kr 국민참여마당 www.people.go.kr의 국민제안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안·토론·홍보·인터넷신문고 등으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확보했습니다.
- 정부 각 부처에 국민참여의 활성화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부처 국민참여 사례 | |
|------------|----------------------------------|
| 기획예산처 | 지자체 예산 배정을 위한 전국순회 간담회 개최 |
| 산업자원부 | 기업활력 옴부즈만 전담조직 설치 |
| 건설교통부 | 예산편성 과정에 연구기관·시민단체 참여, NGO담당관 신설 |
| 중앙인사위 | 국민이 참여하는 인사 공개추천제 활성화 등 |

참여정부 출범 이후 민원서비스의 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부처간 이견 등을 조정함으로써, 민원처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민원인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지정민원의 확대로 부처의 책임감이 강화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민원인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합니다.
- 행정부처, 시민단체 등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대응 및 재난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 물류, 교통 등 국민경제에 타격을 주는 사태에 대한 비상대비책을 마련중입니다.
- 청와대·총리실과 관련부처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 체제를 통해, 사안별 비상대응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 대화·협상·공권력 투입 등 단계별 상황대응 매뉴얼을 마련,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제를 갖출 것입니다.
-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난관리기본법 제정 및 전담기관 신설을 추진중입니다.
- 사회갈등 해결 시스템도 마련해 정부의 갈등해결 능력을 배양할 것입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의 국민참여 확대와 정보공개 내실화로 국민참여정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할 것입니다.

갈등해소 논의기구 설치 추진
24개 주요 사회적 갈등과제 선정, 중점 관리

